플랜잇 프로젝트 발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랜잇이라는 가계부 서비스를 {만든?} 황천길 팀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 저희 발표는 크게 다섯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 뒤에 저희가 구상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기획의도와 시장성에 대한 설명이 중점이 되겠구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구상한 프로젝트의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기술}들(장고 피니아 뷰 등)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기능들이 구현되어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의도했던 바를 모두 완벽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사항이나 향후 추가하고싶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명은 황천길이고, 저는 팀장인 천명준입니다. 저희 팀 구성원은 황지민 교육생과 저 이렇게 총 두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명은 구성원들의 성을 따와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역할 분담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명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진행하는 프로젝트여서 역할 분담이 엄청 뚜렷하게 백이나 프론트로 구분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흐름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설계하면 {제가 레퍼런스 가져오면 황지민 디자인} 황지민 교육생이 그에 맞춰 백엔드에서 필요한 로직들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기능들이 모두 완성되면 제가 프론트에서 각종 기능들을 구현하고 백과 프론트를 연결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이거 근데 기술 소개 부분으로 빼는게 나을지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플랜잇은 계획이라는 뜻의 plan과 it 의 합성어로 계획한대로, 목표를 세운대로 지출해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계획한대로 지출하고 계신가요? 거창한 의미의 계획이 아니라, 한달 예산을 잘 지켜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생각보다 쓴 돈이 너무 많거나, 월말 즈음이 되면 통장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분명히 나는 천원 5천원 이렇게 썼는데 돌아보니 막 50만원 이런 경험은요? 저희 프로젝트는 바로 그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인이 되고부터 본격적으로 돈관리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돈관리가 꽤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은 욜로 유행하다가, 욜로욜로하다가 골로간다는 우스겟소리도 나오고, 실제로 한겨례 기사를 보면 재무스트레스는 2030이 제일 크다, MBC에서는 20대의 경제고통이 전연령대중 최고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무를 다루는 지식이나 자제력이 조금은 부족해서가 아닐까? 어쩌면 옆에서 봐줄 사람이 없는건아닐ㄲ? 그렇다고 부모가 봐주느ㅜㄴ건 시러 잔소리자나. 그래서 나만의 AI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가이드를 잘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게 신용대출은 증가추세이고, 24년 6월보고서에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심지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돈관리의 문제는 비단 2030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가계부들을 써보면서 아쉬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지출 기록만해주거나, 여기 있는 서비스는 저기 없고, 저기는 여기없고, 생각만큼 시인성이 좋은 서비스나 어플도 없었고, 분석 기능은 내가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기보단, 말 그대로 얼만큼 썻는지 분석하는데에 그친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플랜잇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환경은

백: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로 사용자 인증, 수입 지출관리 소비분석 gpt연동 api구현했구요

프론트: 뷰.js3로 각각의 페이지를 구성하고 피니아로 상태관리했습니다.

DB는 sqlite사용했습니다.

ERD는 단촐해 보이지만, 사용자의 수입, 지출, 예산, 고정비를 체계적으로 연결한 구조로, 감정 분석 및 맞춤 소비 가이드 기능까지 확장 가능한 데이터 모델입니다.

저희 Planit 프로젝트는 사용자 맞춤형 소비 분석 및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 중심의 수입/지출 기록, 예산 및 고정 지출 설정, 그리고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공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RD에서는 총 6개의 주요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User: 모든 데이터의 중심이 되는 사용자 테이블로, 이메일 기반 로그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Income / Expense: 사용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일별로 기록하며, 감정 상태도 함께 저장하여 감정 기반 소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MonthlyBudget / FixedExpense: 월별 예산과 고정 지출을 따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 패턴과 계획된 지출을 분리해 추적합니다. Notice: 시스템 운영 측면에서 공지를 관리하는 테이블로, 사용자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재무 데이터는 User 테이블을 기준으로 외래키(Foreign Key) 관계를 맺고 있어, 사용자 맞춤형 분석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합니다.

초기데이터는 이렇고

그래서 지피티랑 우리 소비 목록이랑, 지피티 학습시켜서 테스트 유저 이만큼 만들었고

이런 결과가 나옴

주요 화면은 이렇다

입력창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되어있고, 이러면 넘어가고 <> 여기에 들어갈 기능들은 같이 논의 필요함.

각자 느낀점 어쩌구저쩌구